

“약물 없는 깨끗한 대회 위해 왔습니다”



美 플라이트 교수와 제자 6명 FINA 초청 ‘반 도핑 캠페인’ 선수 무작위 혈액·소변 채취 평창동계올림픽때도 자원봉사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서 반 도핑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플라이트 교수와 제자들.

“약물없는 ‘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위해 제자 6명과 함께 광주에 왔습니다.”

플라이트 프리즈(59·미국) 미국 버지니아주 세넴도어 대학교(Shenandoah University) 교수는 “미국은 고교부터 대학교까지 도핑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세계 대회를 통해 도핑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제자들과 광주에 왔다”고 밝혔다.

반 도핑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플라이트 교수는 FINA(국제수영연맹)의 초청을 받아 ‘국제행사 관리’(Global Event Management)라는 수업의 일환으로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광주를 방문했다. 그의 제자들은 이번 대회에서 ‘사프롱’(chaperon)이라 불리는 도핑 자원봉사자로 활동하고 있다. 사프롱은 프랑스어로 ‘젊은 여자가 사교장에 나갈 때에 보살펴주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도핑관리 자원봉사자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사프롱은 메달을 딴 모든 선수들과 무작위 선정된 선수들마다 한 명씩 배정된다.

이때 배정된 사프롱은 선수를 1대1로 전담하면서 선수들이 경기장 가까이에서 마린된 도핑관리실에서 소변과 혈액을 채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플라이트 교수는 대학시절부터 미식축구 선수로 활약했다. 리빙백이었던 그는 1987년부터 1992년까지 유럽에서 가장 큰 리그인 독일의 GFL(German Football League)에서 5년간 활약했다. 은퇴 후에는 스위스 국가대표팀 코치를 역임하기도 했다.

코치생활을 하던 플라이트 교수는 어느 순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 들었다. 곧바로 미국 플로리다로 이주해 플로리다 주립대에 입학해 스포츠 마케팅 공부를 시작했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플라이트씨는 2002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4년부터

세넴도어 대학교 스포츠 비즈니스 마케팅 전공 교수를 하고 있다.

플라이트 교수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때도 방문하는 등 한국과도 인연이 깊다. 그는 “한국 방문은 이번이 3번째로 평창동계올림픽 때 제자 2명과 한국을 찾아 바이애슬론 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펼친 적 있었다”면서 “평창동계올림픽 때는 IOC의 지원을 받아 왔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초청은 받았지만 자비로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교에서 교환학생으로 만난 40여명의 한국인들과는 10년 넘게 연락을 주고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초 한국에서는 ‘약물’ 논란으로 시끄러웠던 미국 플로리다로 이주해 플로리다 주립대에 입학해 스포츠 마케팅 공부를 시작했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한 플라이트씨는 2002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2014년부터

를 말한다. 전현직 트레이너 등이 약물 복용 사실 등을 폭로한 바 있다. 최근에는 프로야구 선수출신이 운영하는 야구교실에서 아마추어 선수들을 대상으로 불법 스테로이드 제조 및 투약 사실이 적발되는 등 약물 문제가 사회적으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번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중국의 쑨양도 지난 2014년 5월 중국선수권대회 기간 중 도핑테스트에서 혈관확장제 성분인 트리메타지딘 양성 반응을 보여 도핑에 연루된 적이 있다.

플라이트씨는 “IOC와 함께 기획해 반도핑 캠페인을 시작했다”면서 “광주에 온 만큼 반 도핑 홍보와 교육 등 캠페인을 펼쳐 철저한 관리를 통해 이번 대회를 약물 없는 클린 대회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글·사진 김한영 기자 young@

1m 스프링보드 출전 큰 자산 한국 여자 다이빙 미래 기약

광주·전남 선수 아름다운 도전 ② 싱크로나이즈 플랫폼 권하림 여자 대표팀 최연소 출전... “올 가을 전국체전 금 목표”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광주체육회 권하림(20)에게 한 계와 도전 과제를 일깨워준 대회로 남게됐다. 대한민국대표팀 여자 선수 가운데 가장 나이 어린 권하림은 지난 13일 혼성 10m 싱크로나이즈 플랫폼 경기를 마쳤다. 한국 선수 중 가장 먼저 세계선수권대회 일정을 끝냈다.



대표팀 최연소로 구성된 혼성 10m 싱크로나이즈 플랫폼에서 권하림과 김지옥(18·무거고)은 아쉬웠다. 이들은 이날 광산구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다이빙 혼성 10m 싱크로나이즈 플랫폼 결승에서 5차 시기 함께 247.20점을 얻어 7위에 올랐다. 둘은 8개 참가국 중 잉그리드 올리베이라(브라질·239.46점)만을 제쳤다. 권하림은 개막일인 12일 개인전 여자 1m 스프링보드에서 17위를 했다.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최종성적이다.

하지만 한국 다이빙의 미래인 권하림에게 이번 대회는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 그는 “경기에서 다른 선수들이 점수 받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며 “종목 난이도를 높이고 연기동작을 다듬으면 큰 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하림에게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수영에 입문한 이래 가장 큰 경기였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관중들에게 큰 환호와 박수를 받아 어땠달까”고 말할 정도로. 주종목이 플랫폼인 권하림은 다른

종목을 경험하는 기회였다. 대표팀 선수의 출전 종목을 안내하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1m 스프링보드에 출전하게 된 것이다. 권하림은 혼성 10m 싱크로나이즈 플랫폼 출전도 처음이었다. 광주체육회 고병진 코치는 “(하림의) 연기 난이도가 세계적인 수준에 비해 낮았다”면서도 “원래 플랫폼이 주종목인데 1m 스프링보드를 뛰게 된 것은 개인적으로 엄청난 자산이 됐을 것이다”며 “이번 대회 출전은 권하림에게 엄청난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하림의 목표는 오는 10월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광주시에 금메달을 안기는 것이다. 지난 99회 전국체육대회에서 플랫폼다이빙 1위, 싱크로나이즈다이빙 1위를 차지했던 것만큼 성적을 냈으면 하는 게 광주체육회의 바람이다. 고병진 코치는 “권하림은 아직 어리고 성장하고 있다. 지금처럼 열심히 한다면 내년 세계선수권, 도쿄올림픽에서도 돋보이는 성적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단=윤영기 기자 penfoot@

웃음 주고 정보 주는 수리·달이 로봇

경기장·선수촌 다니며 즐거움 선사 ‘인기 폭발’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주경기장인 남부대 시립국제경기장과 선수촌에는 선수단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끄는 똑똑한 로봇(사진) 2대가 있다.



을 찍듯이 수영대회 관련 각종 배경, 스티커를 선택한 후 사진을 찍은 후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입력하면 곧바로 로봇이 찍은 사진을 전송해준다. /*특별취재단=김형호 기자 khh@

대회 마스코트의 이름인 수리(남부대 경기장)와 달이(선수촌)로 불리는 로봇이다. 이 로봇들은 실제 수리·달이의 모습이 모니터에서 나와 친근하게 느껴진다. 로봇은 경기장 게이트 부근을 돌아다니며 관람객들에게 먼저 말을 건다. 정면에 사람이 있을 경우 멈춰선 후 배 쪽에 있는 대형 디스플레이에서 대회소개와 경기일정, 경기장 정보, 행사-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를 안내한다.

음성인식 기능이 있어 관람객의 ‘오늘 날씨는 어때?’와 같은 질문에 ‘오늘 광주 날씨는 맑고 최고 온도는 31도입니다’라고

말도 한다. 정보 제공 뿐만 아니라 함께 춤을 추는 댄스기능과 직접 사진을 찍어주는 기능도 탑재돼 있다. 사진 기능은 관람객이 스티커 사진을 찍듯이 수영대회 관련 각종 배경, 스티커를 선택한 후 사진을 찍은 후 자신의 이메일 주소로 입력하면 곧바로 로봇이 찍은 사진을 전송해준다.

남부대 두가지 풍경

주 경기장은 선수들 경쟁 치열...잔디광장선 축제 한마당

남반있는 저녁이 광주시 남부대학교 주경기장 마켓스트리트에서 펼쳐졌다.

지난 15일과 16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주무대인 남부대에서는 두 가지 풍경이 연출됐다. 국제 수영장과 수구 경기장에서는 선수들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고, 외부에서는 서울의 날 행사가 진행되면서 축제 한마당이 꾸러졌다.

남부대학교 우정의 동산 잔디광장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서울거리예술단 등 서울 대표 공연단의 초청 공연이 펼쳐졌다. 서울홍보대사인 스위트로우, 10cm까지 감성보컬들의 공연도 여름밤의 정취를 더했다. 잔디광장 한쪽에는 푸드트럭과 맥주 코너도 마련되어 있어 경기를 끝낸 관계자들과 경기장에 구경나온 시민들이 한데 어울려 맛과 멋을 즐겼다.

서울관광재단 김은미 과장은 “서울시정 앞 광장처럼 연출하고 싶었다”며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은 광주세계수영대회 성공을 위해, 서울시 홍보관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서울-광주 간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서울관광에 대한 내외국인의 인지도도를 높이고 싶다”고 언급했다.

한편 남부대학교 접단관 앞에는 서울시 티투어버스(2층버스)를 활용한 서울시 홍보관이 설치되어 있다. 이곳에서는 서울관광 명예홍보대사인 방탄소년단(BTS) 포토존이 운영되고, BTS가 소개하는 서울관광 홍보영상도 상영된다. 서울 핫플레이스 다크게임과 서울시 전국체전 100주년 기념 미니 손가락체전 등을 통해 경품도 증정하고 있다. /*특별취재단=김여울 기자 wool@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 2311㎡ 블루베리 500여주 식재 8500만원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교 인근 5200만원
- 화순 남면 유마리 유마사 마을 1021㎡ 전망 좋음 48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투자·매도·교환

- 월산동 다가구 단지 188㎡ 주택 177㎡ 방 10실 전세 800월 150 임대 은행 3천 매도 2억6천
- 다기구 주택 허기남 땅 남구 서동 342㎡ 위치좋은 4억4천
- 완도읍 망석리 산 자연녹지 3306㎡ 전망좋은 사할적합 6천만원
- 곡성군 입면 매월리 임야·전 24056㎡ 농장·귀농생활 적합 9천만원
- 남구 월산동 소방도 상가주택 단지 104㎡ 건평 98㎡ 공실임 1억2천
- 함평 손불면 산남리 전 8588㎡ 귀농생활적합 2억6500
-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단지 641㎡ 주택 있으나 주택신축적합 1억5백
- 별장·나주시 도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남구 월산동 월산아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층주택 4억4천
- 담양 금성면 추월산 가는 길 땅 808㎡ 커피숍·식당 적합 3억4천

상가건물

- 나주 혁신도시 중심지 3층 193㎡ 분양 4억9천 은행 2억5천 매도·교환 5억
- 월산동 농성초 옆 도로 2층 주택단지 140㎡ 주택 153㎡주차장있음 2억4천
- 대인동 버스도로 땅 709㎡ 건평 810㎡ 시육 등 적합 공사가 13억7천 매도 28억
- 두암동 버스도로 5층건물 단지 301㎡ 건평 997㎡ 임대생활적합 8억2천
- 농성동 새 원룸건물 단지 343㎡ 건평 712㎡ 1층 가게는 공실 17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광산구 덕림동 계획관리지역중심 29144㎡ 다용도 투자에도 양호 10억8천
-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 전원주택단지 적합 27215㎡ 광주서 30분거리 13억2천
- 나주시 금천면 영산강부근 땅 26334㎡ 전원주택형 빌라 등 적합 29억
- 영암군 학산면 영산강점 산 97404㎡ 감정 8억4천선 하자 5억8천 매도 3천
- 나주시 도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임야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바로합니다. 010-6834-7400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옥상지붕공사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여름의 뜨거운 열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특허청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